

축 사

오늘은 팔공산 동화사가 개창한 이래 1520년 만에 총림으로 승격하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모여 숲을 이룬다는 총림(叢林)은 참선 수행자를 견성성불하게 만드는 수행의 장이며, 미완의 존재를 전인적인 존재로 전환시키는 깨달음의 장입니다. 조선시대 백암스님은 치문경훈주에서 ‘풀이 어지러이 생기지 않는 것을 총(叢)이라 하고, 나무가 어지러이 자라지 않을 것을 림(林)이라 하니, 그 속에 본보기와 법도가 있다’고 하여 총림이 바른 법도를 지키며 수행하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뜻은 지난 1500여년 동안 바른 법도를 지키며 영남불교의 선맥을 이어온 이 도량이 왜 총림이 되어야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림에는 대중을 통솔하는 방장(方丈)스님이 계셔야 비로소 총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총림의 모든 수행자를 지도하시는 방장스님은 선에 대한 안목과 정견, 정안을 갖추셨기에 조계종의 법통을 상징하는 종정예하께서 팔공총림의 방장이 되시는 것은 실로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동안 맥이 끊겼던 ‘종사이운식’을 복원하고 여법한 승좌법회를 개최하여 종정 예하의 방장 취임을 장엄하여 주었습니다.

일찍이 향곡스님의 문하에서 화두 관문을 타파하여 선가의 법맥을 계승하신 후 승속을 막론하고 참선법을 지도함으로써 선의 대중화, 생활화를 이끌어 오신 종정예하를 방장스님으로 모시게 된 것은 팔공총림 대중의 흥복(洪福)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법한 승좌법회를 통해 방장스님을 모시게 되어 팔공총림은 명실상부한 총림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종정예하를 비롯한 팔공총림의 모든 사부대중에게 경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팔공총림은 총림을 총림답게 만드는 또 다른 조건을 충족시키

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면면히 이어오는 청규(淸規)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규는 총림을 움직이는 법전(法典)이며 총림을 운영하는 규칙과 규율의 집대성입니다. 방장스님이 계시지 않는 총림이 존재할 수 없듯이 청규가 지켜지지 않는 총림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으로 대표되는 청규의 정신을 구현하여 수행과 계율을 바로 세우는 것이 팔공총림을 명실상부한 한국불교의 대표총림으로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더불어 오늘 초대 방장으로 승좌하시는 예하의 수행자 복지에 대한 평소의 각별함을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승가복지가 절실한 이유는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일대사의 결정이 흔들리는 일이 결단코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좌스님들이 깨달음의 열망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발심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은 참다운 승가공동체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출가 수행자로서 수행에만 전념하고 깨달음의 공덕이 종도와 국민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종단은 승가복지를 적극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총림은 수행자중 으뜸가는 어른이신 방장의 지도하에 대중이 여법하게 정진하는 종합수행도량입니다. 지난 1500여년 동안 한국불교의 선맥을 이은 수선참구도량으로 대구 시민의 정신적 귀의처 역할을 수행해 온 동화사는 영남불교 1번지라는 이름에 걸맞는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팔공총림의 초대 방장으로 취임하시는 종정 예하의 지도 아래 영남불교의 대표 도량에서 교학과 수행을 겸비한 한국불교 최고의 총림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7(2013)년 8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